

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또 동평주(東平州) 양곡현(陽穀縣)의 경계를 지나니 안산호(安山湖)가 있는데 폭과 길이가 수십 리나 되어 멀리서 바라보면 동남쪽으로 여러 산들이 구불구불 뻗어 있어 사랑할 만하였다. 뱃사공에게 물으니, 남쪽으로 가장 가까운 작은 산을 가리키며 이랑산(李梁山)이라 하였다. 산 위에는 바위가 높고 있어 마치 대(臺)를 쌓은 것과 같았다. 뱃사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이 여동빈(呂洞賓)이 옛날에 놀던 곳이다. 바위의 높이가 대략 다섯 길 되며 그 위에 우물이 있다.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맹세하는데 마음으로 거짓을 품은 사람은 저절로 정신이 혼미하여 오를 수 없다. 그래서 그 다리를 매심교(昧心橋)라 부른다”고 하였다. 산은 안산호 남쪽에 있다. 안산호는 황하와 거리가 십오 리 정도이며 산은 황하와 거리가 겨우 수 리이다. 나는 이곳이여량(呂梁)이므로 동빈을 칭탁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다. 그 글자를 물으니 뱃사공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다만 과리(果李)의 이(梨)와 같다고 말할 따름이다. 황하에 도달하여 바라보니 산은 동북쪽에 있고 황하의 물은 서쪽으로 와서 그 산 밑에 이르러 차츰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흘렀다. 배는 황하를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므로 그 산 아래 물의 형세가 어떠한지 모른다. 서쪽으로 운(漚)에 이르니 황

하의 지류가 남쪽으로 갈라져 물결을 따라 내려갔다. 제영부(濟寧府)를 거쳐 패(沛)를 지나 사수(泗水)로 들어가 서주(徐州)의 방촌(房村)에 이르니 또 여량홍(呂梁洪)이 있었다. 비록 산은 없으나 물이 많고 물살이 험해 배를 저어갈 수 없었다. 언덕에 올라 배를 바꾸어 타니 언덕에는 원(元)나라 때 한림학사를 지낸 노지(盧摯)가 지은용사(龍祠)의 비(碑)가 있었다. 뱃사공이 또 여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이 여동빈(呂洞賓)이 옛날 노닐던 곳이라고 할까? 배를 황하 북쪽의 산이 비슷하여 또한 여량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저여량(呂梁)의 여(呂)자는 곧 동빈의 성(姓)이다. 그러므로 손사님들의 말이이름을 같을 뿐이다. 또 회수(淮水)에 도달해서 동쪽으로 십여 리를 가니 큰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회수와 합하여 회안부(淮安府)를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나는 그래서 수역(水驛: 나룻터)과 주도(府道: 뱃길)가 처음 황하로 들어갈 때는 이른바 이랑산 아래를 경유해서 물결을 따라 남쪽으로가고 여기에 이르러 회수에 들어가면 회안에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황하에 들어와서 물결을 거슬러 서쪽으로 갈 때는 제수(濟水)와 사수(泗水)를 거쳐 회수(淮水)로 들어가고 또 황하와 떨어진 후에 회안에 이르르면 반드시 멀다. 따라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을 취하게 된다. 생각건대 반드시 하북은 이른바 이랑산 아래로, 즉 황하가 물결을 바꾸어 남으로 가는 곳이다. 서쪽으로 운(漚)에 이르니 황

하의 지류가 남쪽으로 갈라져 물결을 따라 내려갔다. 제영부(濟寧府)를 거쳐 패(沛)를 지나 사수(泗水)로 들어가 서주(徐州)의 방촌(房村)에 이르니 또 여량홍(呂梁洪)이 있었다. 비록 산은 없으나 물이 많고 물살이 험해 배를 저어갈 수 없었다. 언덕에 올라 배를 바꾸어 타니 언덕에는 원(元)나라 때 한림학사를 지낸 노지(盧摯)가 지은용사(龍祠)의 비(碑)가 있었다. 뱃사공이 또 여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이 여동빈(呂洞賓)이 옛날 노닐던 곳이라고 할까? 배를 황하 북쪽의 산이 비슷하여 또한 여량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저여량(呂梁)의 여(呂)자는 곧 동빈의 성(姓)이다. 그러므로 손사님들의 말이이름을 같을 뿐이다. 또 회수(淮水)에 도달해서 동쪽으로 십여 리를 가니 큰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회수와 합하여 회안부(淮安府)를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나는 그래서 수역(水驛: 나룻터)과 주도(府道: 뱃길)가 처음 황하로 들어갈 때는 이른바 이랑산 아래를 경유해서 물결을 따라 남쪽으로가고 여기에 이르러 회수에 들어가면 회안에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황하에 들어와서 물결을 거슬러 서쪽으로 갈 때는 제수(濟水)와 사수(泗水)를 거쳐 회수(淮水)로 들어가고 또 황하와 떨어진 후에 회안에 이르르면 반드시 멀다. 따라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을 취하게 된다. 생각건대 반드시 하북은 이른바 이랑산 아래로, 즉 황하가 물결을 바꾸어 남으로 가는 곳이다. 서쪽으로 운(漚)에 이르니 황

을 것이다. 또 여불위와 역도원의 설을 가지고 본다면, 여량산은 황하가 지나가는 매우 험준한 곳으로 우 임금이 공을 편 것이 가장 많다. 산에 길을 내고 강에 길을 내는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지주(砥柱) 및 용문(龍門)과 서로 나란히 하였을 것이거늘 경문에 모두 다시 적지 않은 것은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노지의 비에 “하수가 협(峽)에 이르러 지주(砥柱)의 협준함을 이루고 서주로 지류를 이루어 여량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서주의 여량을 황하 물길의 협난함이니 남쪽으로 옮겨져서 그러한 것이리라. 안산호(安山湖)는 옛날하도(河道)여야 당연하다. 또 그 산이 온통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모두 돌로 되었으므로 산이 반드시 황하 가운데 있지 않고 황하가 그 산 아래를 지나니 물이 험하기에 물길이 빠르다. 그러나 동평(東平)은 연주(兗州)의 경계에 있다. ‘집전’에서 “여량산은 기주(冀州)의 산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안산호 남쪽의 산을 여량산이라고 하지 않았다. 서주(徐州)의 여량산은 경문(經文)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사바 격렬하게 부딪치는 많은 돌은 반드시 들어서 소통시켜야 했음은 분명하다. 우 임금이 치수하여 그 업적을 나타내었을 때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였거늘 서주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지명이 유연히 같을 경우가 간혹 많이 있지만 그 협준함이 서로 비슷함은 또 무엇 때문인가? 민약에 “후세에 뿔어서 뱃길을 소통시켜 그 협준함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면, 우 임금 때의 회수(淮水)와 사수(泗水)의 뱃길은 황하에 도달했

(다음호에 계속)

특기고

<41회>



명 이 터졌다. 전군(殿軍:대열의 맨 뒤에 따르는 부대)을 맡았던 정세아의 부대가 서천(西川)가에서 적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더욱 놀라 뛰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충의공은 다른 장수들에게 수습을 맡기고 주위에 있던 10여 기와 함께 서천으로 달렸다. 그들은 적의 주위를 이리저리 말을 달리면서 화살을 퍼붓고 때로는 돌진하여 창으로 돌격하였다. 포위를 당한 정세아는 이미 58세, 일찍이 진사에 급제한 늙은 선비였다. 전쟁이 터지고 적이 영전까지 들어오자 앞장서 의병을 일으키고, 영천성 수복전 등 많은 전투에 선두에서 싸웠다. 자신뿐만 아니라 일기가 모두 칼을 들고 나서니 그와 비슷한 이 되는 장대임·정당(鄭滄)도 큰 공을 남긴 의병장이었다. 정세아는 무인은 아니었으나 거둬지는 전투의 경험에서 이미 무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병법대로 사소한 희생은 도의시하고 총력으로 돌격을 감행하여 포위망 남쪽에 돌파구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의 부대 9백 명은 이 돌파구를 통하여 폭풍같이 밀고 나와 충의공의 마중을 받았다. 이 전역에서 손척침이 적을 만나 그 모진을 구하려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오지 않았다. 손척침과 그 모진을 구하여고 아우 손덕순과 아울러 이 돌파작전에서 부친을 감싸고 호위하였던 그의 아들 정익빈(鄭直藩), 보좌관 최인제(崔仁濟) 등이 함께 갔다가 모두 전사하였으나 적중이라 시체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후퇴하던 부대는 경주 남방 10리, 계연(鷄淵)에서 다시 태세를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7)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정비할 수 있었다. 충의공은 정세아·박의장 등 의병장들과 함께, 추격하여 온 전과 혈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왜적들을 북쪽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밀린 왜적은 다시 경주성으로 들어갔다.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울산 서생포(西生浦)로 도망쳐 아났다. 그 왜적들은 임진왜란 때 가장 사납고 잔인하기로 이름난 제2군 가토모 키요마사(加藤清正) 부대였다. 이리하여 경주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더욱 놀라 뛰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충의공은 다른 장수들에게 수습을 맡기고 주위에 있던 10여 기와 함께 서천으로 달렸다. 그들은 적의 주위를 이리저리 말을 달리면서 화살을 퍼붓고 때로는 돌진하여 창으로 돌격하였다. 포위를 당한 정세아는 이미 58세, 일찍이 진사에 급제한 늙은 선비였다. 전쟁이 터지고 적이 영전까지 들어오자 앞장서 의병을 일으키고, 영천성 수복전 등 많은 전투에 선두에서 싸웠다. 자신뿐만 아니라 일기가 모두 칼을 들고 나서니 그와 비슷한 이 되는 장대임·정당(鄭滄)도 큰 공을 남긴 의병장이었다. 정세아는 무인은 아니었으나 거둬지는 전투의 경험에서 이미 무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병법대로 사소한 희생은 도의시하고 총력으로 돌격을 감행하여 포위망 남쪽에 돌파구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의 부대 9백 명은 이 돌파구를 통하여 폭풍같이 밀고 나와 충의공의 마중을 받았다. 이 전역에서 손척침이 적을 만나 그 모진을 구하려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오지 않았다. 손척침과 그 모진을 구하여고 아우 손덕순과 아울러 이 돌파작전에서 부친을 감싸고 호위하였던 그의 아들 정익빈(鄭直藩), 보좌관 최인제(崔仁濟) 등이 함께 갔다가 모두 전사하였으나 적중이라 시체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후퇴하던 부대는 경주 남방 10리, 계연(鷄淵)에서 다시 태세를

준할 형세가 없었을 것이니 그 한번의 착수가 국가를 회복시키는 기반이 되었도다.”라고 하고 곧 임금의 파천한 행조(行朝)에 장계를 올려 이 같은 승계직책을 배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10월에는 함경도로 피난하였던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가 왜적들에게 합포(陷捕)되고, 서울에 주둔한 왜적들이 강남의 선릉(宣陵: 성종의 능)과 정릉(靖陵: 중종의 능)을 파헤쳤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을 향하여 통곡하였다. 선조 26년(1593년) 계사년 충의공 48세 2월에는 순찰사 한효순(韓孝純: 1543-1621,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月灘)과 더불어 7군(郡)의 군병을 연합하여 담고(檀高)에서 왜적을 맞아 싸웠는데 기습작전으로 적들을 초멸(剿滅)시켰다. 한효순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영해부사로 영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인근 옮긴, 평해를 위시하여 안동, 풍기 지방 일원의 안정을 회복한 공로로 경상좌도 관찰사로 임명되고, 1593년 병조참판으로 발탁되었다. 문과 급제자로서 병술에도 능하였고, 이순신 장군의 발탁도 수군강화, 군량미 조달, 거북선과 판옥선 제작 등을 지시하여 수군 전투력 강화에 공로가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조참판, 평안도 관찰사, 개성유수,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고, 병서(兵書)로 신기비결(神器秘訣)과 진설(陣說)이 있는 출장인상(出將入相)과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인물이었다. 2월 25일 충의공은 다시 산양(山陽)의 탑전(塔田)에서 왜적을 맞아 싸워 1백여 수급을 베었다. 당시 안집사(安集使) 백암(伯巖) 김득(金得, 1540-1616: 임진왜란 당시 형조참의를 거쳐 안동부사로 있다가 안집사. 뒤에 경상우도 관찰사, 성균관 대사성, 흥문관 부제학 등을 역임)이 영남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죽령과 조령에서 왜적이 막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4)

논어 해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權貞澤



형벌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스스로 슬로움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제사 드리라는 것이다.” [원문] 孟懿子問孝子曰無違니라 樊遲御더니 子告之曰 孟孫이 問孝於我어늘 我對曰無違하리라 樊遲曰 何謂也니이까 子曰 生事之以禮하며 死葬之以禮하며 祭之以禮니라.

[맹의자문효하되 자왈 무위니라 번지어러니 자고지왈 맹손이 문효어어늘 아대왈무위하리라 다 번지왈 하위어니이까 자왈 생사지어어하며 사장지어어하며 제지어어니라.]

[이해] 맹의 자는 노나라 대부 중순하기(仲孫何忌)를 가리키며, 그의 아버지 맹희자(孟獻子)가 공자에게 사사하여 예를 배우게 했다. 번지는 제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수(須), 자는 그의 자이며,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서른여섯 살이 연소하였다. 효를 행하며 있어 살아가는 물론 죽어서 장례를 치루고 제사를 밭들게 이르기까지 예에 벗어나는 행실이 없어야 된다. 이리다.

[자왈 오십유오이 지어학하고 삼심이 입하고 사십이불혹하고 오십이 지천명하고 육십이 이순하고 칠십이 종심소욕하되 불유구니라.]

[원문] 孟懿伯이 問孝하되 子曰 父母는 唯其疾之憂니라.

[맹무백이 문효하되 자왈 부모는 유기질지우니라.]

[이해] 맹무백(孟武伯)은 맹의자의 아들 체(蔑)로 백[伯]은 만의의 항렬을 나타낸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무병하기를 기원하므로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에 경강하심을 위해 항시 깊은 속마음에서 우려나오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는 뜻이다. (다음호에 계속)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 것이요,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근심할 것이다.”

[원문] 子曰 不患人之不己知오 患不之人也니라.

[자왈 불환인지불지지도 환불지인어니라.]

[이해] 학문과 수양을 쌓고 덕성을 닦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므로 남이 몰라주더라도 내가 서운해할 것이 없으나 정작 내가 남을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을 갖지 못할 경우는 자신을 올바르게 도와 시키고 개발해나갈 뚜렷한 기준이 불확실 해진다는 뜻이다.

제 2편 위 정(爲政)

위정편(爲政篇)은 스물네 장(二十四章)이다.

제1장

공자가 말하였다. “덕으로 정치로 시행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 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과도 같다.”

[원문] 子曰 爲政以德을 譬如北辰이 居其所而 衆星이 共之니라.

[자왈 위정덕을 비여북성이면 거기소려는 이중성이 공지니라.]

[이해] 덕으로 시행되는 정치는 자발적인 백성의 도덕성에 그 바탕에 두며 위정자로부터의 구속력이 각종 법률이나 제도 규범 등 다

양한 형태의 기본 틀로 작용하는 보편 정치와는 근본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

제2장

공자가 말하였다. “시경삼백편의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드러낸 생각에 사약함이란 없다.”

[원문] 子曰 詩三百이 一言以蔽之하니 曰 思無邪니라.

[자왈 시삼백이 일언이폐지하니 曰 思무사니라.]

[이해] 현재 전해지는 시경의 편수는 삼백다섯이지만 공자 생존 시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사의 시가는 가식이 없고 진정 순수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약함이 제재될 까닭이 없다는 말이다.

제3장

공자가 말하였다. “법률과 제도로서 질서를 세우고 형벌로서 명확히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모면하려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린다면 수치를 알고 또 용발되질 것이다.”

[원문] 子曰 道之以政하고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道之以德하고 齊之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

[자왈 도지이정하고 제지이형이면 민면어무치니라 도지이덕하고 제지이예면 유치차격이니라.]

[이해] 법률과 제도로 강요하기보다는 감화시켜서 예로서 다스릴 때



있거든 곧 벨고 대답할 것 아니라.”고 하였다.
참고: 唯...오 직 유, 諾...허락할 락, 咄...토 할 토, 則...곧 즉, 焉...이끼 언.

○太公曰(태공이 왈) 孝於親(효 어친)이면 子亦孝之(자역효치)하니 身既不孝(신기불효)면 子何孝焉(자하효안)이리오.

해설: 태공이 말하기를, “내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 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孝順(효순)은 遷生孝順子(환생효순자)요 忤逆(오역)은 遷生忤逆子(환생오역자)하니니 不信(불신)커든 但看簞頭水(단간침두수)하라 點點滴滴不差移(점점적적불차이)니라.

해설: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또한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을 것이며, 오역한 사람은 또한 오역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의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참고: 還...돌아올 환, 作...거스릴 오, 看..볼 간, 頭...머리 두, 點..점 점, 簞...처마 침, 滴..물방울 적, 差..차도 차, 移..옮김이,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심보감

본원 종사 연구위원 권혁채

<지난호에 이어>

孝行篇(효행편)

○詩曰(시 왈) 父母生我(부해생아) 하시고 母勞鞠我(모해국아) 하신니 哀哀父母(애애부모)여 生我劬勞(생아구로) 사다 欲報深德(욕보심은) 인대 昊天罔極(효천량극) 이리다.

해설: 시전에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아아 애달프도다.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넓은 하늘도 다함이 없도다.” 하였다.

참고: 詩傳(시전)은 詩經(시경)을 해설한 것으로써 공자님께서 편찬하셨다고 한다.

四書(사서)... 論語(논어), 孟子(맹자), 中庸(중용), 大學(대학), 三經(삼경)... 詩傳(시전), 書傳(서전), 周易(주역), 孝...효도 효, 毋...어조사 해, 鞠...기를 국, 哀...슬플 애, 劬...힘쓸 구, 深...깊을 심, 勞...수고로로, 罔...은 헤 은, 昊...하늘 호, 極...다할 극,

○子曰(자 왈) 孝子之事親也(효 자지사친야)에 居則致其敬(거즉기경)하고 養則致其樂(양즉지기

락) 하고 病則致其憂(병즉치기우)하고 喪則致其哀(상즉치기애)하고 祭則致其嚴(제즉치기엄)이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가 아버이를 섬기는 것은 거거 하심에 그 공경을 다하고, 병양함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드렸을 때는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가 있을 때엔 그 엄숙함을 다해야 할 것이니라.” 고 하였다.

○子曰(자 왈) 父母在(부모재) 어시든 不遷遊(불원유)하며, 遊必有方(유필유방) 이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떨어져 놀지 말 것이며, 놀 때에는 반드시 그 가는 곳을 알려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참고: 敬...공경할 경, 養...기를 양, 봉양할양, 親...친할 친, 아버지 친, 樂...즐거울 락, 病...병들 병, 憂...근심 우, 昊...슬플 애, 致...이를 치, 祭...제사 제, ...嚴...엄할 엄, 遊...놀 유,

○子曰(자 왈) 父命召(자 왈 부명소)어 시든 唯而不諾(유이불락)하고 食在二則吐之(식재구즉토지)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속히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음식이 입에